

보건교육 사업을 위한 대중매체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2)



이 시 백

(지난호에 이어 계속)

대중매체는 주민들에 의하여 결정되 강한 피동적 선택성이 있다는 사실을 상 하면서 대중매체를 이용하여 보건교육 할 경우에는 어느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는 비경제성이 높을 수 있음을 예견해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사전에 제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대중매체 이 태도에 대한 충분한 사전 연구가 필요다.

여섯째, 대중매체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제를 보통 타당성이 있도록 유도다. 일반집단에서 토의되기 힘든, 또한 회적으로 거부반응을 받기 쉬운 금기성 강한 과제나 대중매체를 통하여 지역사 주민에게 노출시킴으로써 금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그리하여 대인간에 쉽게 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함으로써 정보 지식의 확산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일곱째,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의 전달 개인 또는 집단이 既소유(형성)하고 있는 가치관이나 규범을 한층 더 강화(증원)시키며 완전히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중립적인 태도일 경우에는 의사(태도와 행위) 정을 하는데 지원 내지 촉매역할을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중매체는 대중매체가 대상자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의제에 따라 기 형성된 태도행위는 가일층 변화될 수도 있지만 대상자가 새로운 태도와 위로 변화될 수 있도록 호의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의도한 태도와 행위로 바꿔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다.

여덟째, 대중매체를 통해서 보건지식이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상위계층에 속해 있는 대상자가 하위계층에 속해 있는 대상자보다 훨씬 높다. 따라서 하위계층에 속해 있는 지역사회주민들에 대한 보건교육활동을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개한다는 계획은 크게 만족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지역사회에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저소득층에 속해 있는 대상자는 대중매체 이용율이 낮기 때문에 대중매체를 통한 정보의 입수나 지식의 습득이 결코 만족스러운 수준에서 성취될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대중매체를 통해서 저개발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의 전달과 태도행위의 변화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또 어느 지역사회에서나 대중매체의 영향을 가장 민감하게 받고 이를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직간접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소위 여론지도자라 지칭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인데 이를 여론지도자가 저개발지역에서는 타인을 지배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는 논리에 따라 여론지도자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상 논의한 사항은 보건교육활동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이해하여야 할 대중매체의 특성이다. 대중매체가 가진 이러한 역

대중매체를
통한 보건교육은
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이
하위계층의 사람들보다
더 효과가 크다.

할과 기능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지역별로, 대상별로 효과적인 보건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대중매체 이용전략

앞에서 검토해본 대중매체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지역별로 대중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 진단을 해 본 결과를 토대로 대중매체를 통한 보건교육사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우선 대중매체를 이용한 보건교육활동을 전개시키고자 할 때는 기본적으로 다음 세가지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첫째, 대상지역사회의 형태 및 제반 특성을 파악하여 대중매체를 이용할 경우, 그 효율성에 대한 예비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보건교육 대상자가 모든 국민이 아닐진데 특수 연령층이나 사회계층별 주민의 특성에 따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

의 내용이나 활용하고자 하는 대중매체의 종류도 그 선택에 있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건데 주민들이 이 속해있는 지역사회의 정치, 문화, 사회적인 구조의 특성이나 전통가치관 등은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상의 모든 점을 통털어 요약하건데 대중매체를 통한 보건교육사업을 전개할 대상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대상자의 지역별·사회계층별 목표를 확실히 할 수 있으며, 또 이에 따른 대중매체의 선택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둘째, 대상지역사회 또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보건에 대한 문제점, 의식구조(행태) 등을 알아야 한다. 과거 질병발생 양상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주민들이 보건에 대해 의식하고 있거나 행동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인식하므로서 대중매체를 통한 보건교육사업을 전개할 때 우선적으로

투입하며 제공해야 할 보건교육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이용가능한 대중매체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며 일반화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대중매체도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그 지역사회주민들이 가장 친근하게 그리고 접촉도가 가장 많은 매체의 선택은 매체활용성을 높히는데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각 대중매체의 특성에 따라 각각의 중요성과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대상자의 선호성에 부합되는 매체가 선호되도록 구체화되어야 한다. 예로서 라디오의 소유율은 다른 어떤 대중매체보다 높으나 청취율이 낮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는 큰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의 성격상 소수의 대상자에게 전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내에 널리 파급시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라디오의 이용이 상당히 큰 효율성을

대중매체를
이용한 보건교육에
있어 지역사회의
정치·문화·사회적
구조의 특성은 대단히
중요한 요인이다.



발휘할 수 있다.

이상 세 가지 고려점을 토대로 하여 대중 매체를 활용한 보건교육전략수립에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실제사업개발에 있어 지침으로 삼고자 한다.

가. 대상자의 특성이나 지역에 따라 대중매체를 선택적으로 활용한다.

앞서 대중매체의 역할과 기능에서 논한 바 있거니와 대중매체가 가진 장점을 충분히 발휘시키고 보건지식이나 정보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사회경제적 위치나 지역별특성을 감안하여 알맞은 매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즉, 교육수준이 높은 도시지역의 대상자는 비교적 인쇄매체(신문, 잡지)의 이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한 보건교육이 가능하나, 반대로 농촌지역주민이나 사회적 수준(교육수준 포함)이 낮은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쇄매체의 적용이 상대적으로 효율성면에서 떨어진다. 또 텔레비전은 라디오에 비하여 도시·농촌 구분없이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대상자가 대중매체에 노출되는 시간이나 호의적으로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의 유형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나. 대중매체는 대상자에 의해 피동적인 선택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여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

이용가능한
대중매체 중
가장 효과적이며
일반화될 수 있는
구체적 수단 개발도
중요한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을 목적으로 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일반인의 흥미를 잃고 외면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건강은 우리 생활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생활과 건강요인을 결부시켜 대중매체에 투입하는 전략개발이 요구된다. 그리하여 되도록 대상자에게 선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대중매체를 통한 보건교육은 지속화 시켜야 한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전달된 지식이나 정보는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변화시킬 줄 수 있을 만큼 강한 동기형성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반복적인 지식이나 정보의 전달은 축적되며, 이로써 의도한 방향으로 태도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동기형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간헐적인 또는 단 몇번 정도의 매체이용은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고 볼 수 있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보건 교육의 효과는 계속적인 지식정보전달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 반복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건교육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④ (다음호 계속)

<필자=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